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목회자들과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임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목회자들을 초대했다.

“주님! 목사인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10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오는 8월 18일부터 소망장로교회에서

“주님! 목사인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학교. 1995년 이래 이 땅의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이요, 아버지이며 남편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온 대표적인 프로그램, 아니 행사, 그보다는 운동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중국·러시아·호주·유럽·미국으로 퍼져나가며 현재까지 53개국에서 5,200여 회의 아버지학교가 열렸고 30만 명의 아버지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다. 이 학교 후 변화된 아버지들의 모습에 아내들이 남편들을 반강제로 등록시키는 현상도 빚어지면서 한때 큰 붐을 이루기도 했다. 미주에서는 한인 2세를 위한 영어권 아버지학교, 타민족을 위한 아버지학교까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학교가 도대체 뭐길래”란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목회에 접목시키기 위해 목회자들이 학교에 참여하면서부터 재미난 현상이 벌어졌다.

아버지학교 지도목사인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의 가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세우는

사역이 필요하다. 또 교회 내에 남성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목회적 관심을 갖고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학교에 참여했다가 아이러니 하게 ‘나도 아버지구나’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LA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열린지 올해가 10년째이며 벌써 32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아버지학교 수료생들이 그 다음 아버지 ‘후보’들을 섬기는 이 행사의 전통을 따라, 이번 제10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도 이 학교를 수료한 목회자들이 섬기며 준비하고 있다.

석종민 목사(참좋은교회)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했다. 원영식 목사(필라델피아 가정사역훈련원)는 “아버지의 참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설명했다.

목회자들 역시 일반 아버지학교에 등록할 수 있지만 굳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개설한 이유가 있다. 먼저 자신의 가정 이야기와 속내를 털어 놓아야 하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이민교회 목회자라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이 학교를 통해 이혼 직전까지 갔던 목회자 가정 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간증들이 있다.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는 “목회자라고 해서 그 가정이 언제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아버지학교를 하기 전에는 ‘나 정도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학교 후에 가정이 변화되고 목회가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소망장로교회(성준기 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505 Los Angeles, CA 90057)에서 개최된다. 8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월 19일 화요일 하루 종일, 8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목회자들의 목회 스케줄에 잘 맞도록 행사 일정이 짜여졌으며 강사는 권준 목사,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 등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목회자들이다. 등록비는 100불.

문의 : 213-382-5454(아버지학교 미주본부)

김준형 기자

밀알 신임 총단장에 이영선 목사 취임

김영길 미주 이사장, 남성수 남가주 이사장 취임

1979년 한국에서 창단된 장애인 선교단체 “밀알선교단”이 35주년을 맞이하며 미주 지역 밀알선교단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취임했다. 특히 미주 지역을 이끌 총단장과 이사장이 모두 남가주 지역, 그것도 OC 지역에 있게 되면서 미주 밀알 사역의 중심이 남가주로 이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영선 목사



김영길 목사



남성수 목사

총신대학교 학생이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재서 박사(현 세계밀알연합 총재)에 의해 창단된 밀알은 현재 미국은 물론 캐나다, 남미, 호주, 유럽, C국 등 100여 개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주밀알은 1987년 필라델피아에서 창단된 이래 남가주, 북가주, 뉴욕, 워싱턴, 텍사스, 토론토, 브라질, 파라과이 등 17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미주 전체를 이끌게 될 총단장은 남가주밀알선교단의 단장인 이영선 목사이며 이사장은 남가주밀알 이사장을 역임한 김영길 목사(감사한교회)가 임명됐다. 김 목사가 미주밀알 이사장에 오름에 따라 남가주밀알의 이사장은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가 임명됐다.

미주 총단장은 북미와 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의 사역을 이끌고 대표하는 자리면서 동시에 전세계 밀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상징성이 큰 자리이기도 하다. 이영선 목사는 2000년 남가주 밀알 단장에 취임한 이후, 미주 지역 내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해 왔다. 사랑의캠프, 사랑의교실 등 기본적 프로그램은 물론,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벌여 2001년 이래 무려 149만 달러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화제를 일으켰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는 세계밀알연합회 사무총장 등 이 단체 내에서도 가장 추진력 있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5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35주년 기념식 및 취임식에는 이재서 총재와 미주 각 지역 밀알 단장들이 참석해 축하했고 강준민, 고승희, 김한요, 민중기 목사 등 LA 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김준형 기자

월드비전 예루살렘-가자 긴급구호 착수

지난 7월 7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프로텍티브 에지(Protective Edge)’ 군사 프로그램 작전이 2주 간 지속되어,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인 1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4분의 1이 아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카테고리 II(10만~100만 명의 인구가 재난으로 피해)를 선포하고, 월드비전 예루살렘-서안-가자 지구(World Vision Jerusalem-West Bank-Gaza) 현장사무소를 중심으로 초기 긴급구호 대응에 착수했다.

월드비전 가자 지구 담당자는 긴급현장조사단을 급파했다. 조사 결과, 현재 가자 지역에는 약 10만 명이 분쟁을 피해 임시거주소로 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자 지역개발사업장 후원아동 전원이 대피하였으나, 가자 지역 내 식수시설의 50%가 훼손돼 안전한 식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월드비전 예루살렘-서안-가자 지구는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유민들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북부 가자 지역에 위치한 알아우다(AI-awda) 병원에 의료물품을 전달했다. 강혜진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 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 YEAR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당뇨연구 40년, 대한민국 대표과학자
송문기 박사 초청 <당뇨 교육 2차 세미나>
당뇨의 근본원인과 치료방법은 있는가?
 현재 당뇨약을 드시거나 의사가 당뇨약을 처방해 드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당뇨 교육세미나가 열립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 개발을 위해 FDA 최종 임상을 앞둔 당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송문기 박사를 초청해 당뇨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 일시 2014년 8월 2일(토) 오후 2~4시
 | 인원 100명 선착순 등록 (확정요망)
 | 장소 미주 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
 621 S. Virgil Ave, Suite 400, Los Angeles, CA 90005
 | 주최 PRO-Z USA
 | 문의 213.434.1170
 초청 강사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미 연방정부에서 급격한 비만성 당뇨 환자증가로 국가 의료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당뇨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잠재적 가치를 크게 인정해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특별 자금 지원으로 당뇨 연구
 세계 100인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된 인물,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재향군인병원 수석 연구원

남부개혁신학대학원, 개혁적 선교적 교회론 찾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SRTCS) LA 캠퍼스(김희창 박사)는 지난 7월 6일 오후 4시부터 9시, 7일부터 9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35시간의 세미나를 열고,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알렸다. 또 현재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개혁적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선교학과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를 열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 캠퍼스에서 4일에 걸쳐 '개혁적 선교적 교회론'을 주제로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방석 박사와 이창배 박사 등 한인 교수와 본교의 커티스 총장, 데이튼 박사 등이 강의했다.

현재의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 교회사상이 현격하게 타락하고 있으며, 교회 이탈현상은 유년층으로 갈수록 그 수치를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지도층에 있는 이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기독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음을 전제로 김희창 박사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김 박사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피와 물(요 19:34)까지 다 쏟으신 성육신의 삶과 사역의 종결인 예수님과 별개의 교회 집단을 만들어 버렸고, 변화나 구별성은 물론이고 씻어주는 돌항아리, 광주리, 세수대야 등을 통하여 계시하신 의미는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어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도록 부추겼다"고 선교적 교회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그 정체성이 기독교 교회가 아닌 유행인식 집단을 만들어 버렸고, 개인욕심의 집단으로 전략하게 하였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이미 주님의 지체가 아닌 부동산 기업으로 여겨 자기 통장을 늘리는 사기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그 외에도 편법 세습, 성직 매매 등 사회

로부터 이런 저런 지적을 당하고 있다. 또한 성장 맘몬이즘의 침투는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개인아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이벤트성 교회가 되게 하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사태로 이어지면서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어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로 치부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기록성을 상실한 교회, 주님과 거리가 먼 교회, 누구나가 들어오는 교회가 아닌 끼리 집단의 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 분열되는 교회를 이루고 말았다"며 "이제 그 비난받던 시대에 로마를 향하여 13년 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대작을 쓰면서 참 기독교관을 외치던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일치성 등 성 어거스틴의 네 가지 교회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 사역의 일환으로 남부개혁신학대학원은 '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Ecclesiology for Mission Based on the Gospel of St. John)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세계적

인 석학들을 초청하였다.

이어 이방석 박사가 '선교에 대한 성경적 확립(Biblical Foundation on Mission)'을, 세계적인 석학 데이튼 박사(Dr. Donald W. Dayton)가 현대교회의 변화하는 접근들(Changing Approaches of Modern Church)을 강의했고, 이창배 박사가 구약성경의 교회론을 루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도출하였다.

휴스턴 본교의 총장인 커티스 박사(Dr. Terrace Curtis)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의 교회론 보기(A Look at Ecclesiology in Today's American Society)-셀교회와 가정교회 운동을 특별히 강조하는 21세기 교회의 동향(Trends of the Church in 21st Centur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ell and House Church Movement)'을 강의해 올바른 교회상을 제시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주소: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문의: 213-219-0649

박기성 기자

"꿈을 꾸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2014년 호남향우회 초청 학생 방문단
미주 견학프로그램 공식 일정 성공리에



호남향우회 초청 학생방문단 미주 견학 프로그램 후 기념촬영

남가주 호남향우회(서영석 회장) 주최로 고국에서 초청된 14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2명으로 이뤄진 '2014 호남지역 모범학생단' 미주 견학프로그램 공식일정이 지난 23일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만찬 겸 환송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윤국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만찬에서 서영석 회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호남 모범학생들을 위해 봉사해 준 이사와 향우회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꿈을 가지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전북도청 임성민 과장은 "지난 14년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남향우회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학생대표로 소감을 전한 송채린 학생은 "꿈을 꾸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호남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나 또한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찬을 후원한 비즈포스트 대표 조 김 회장은 "한류가 자원이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자원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진형 엘에이 축제재단 명예회장이 학생들을 인솔해 온 공무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호남향우회 이사가들이 준비한 푸짐한 선물을 전달했다.

18일 호남향우회 임원단의 환영 및 오찬으로 시작된 일정은 LA 총영사관과 한인회 견학을 시작해, 19일부터 21일은 아주관광 협찬으로 미 서부 관광명소들을 둘러봤다.

22일에는 UCLA와 USC 견학, 23일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견학을 끝으로 24일 멕시코로 출발해 6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30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인규 기자

예성 서부지방회장에 김제임스 목사 선출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제 12회 서부지방회가 지난 22일 토렌스의 워싱턴포드원교회(김제임스 목사)에서 5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지방회에서는 효과적인 개척교회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에 중점을 둔 교회 연합 성회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임임원진으로는 지방회장에 김제임스 목사, 부회장에 강양규 목사(남가주 새언약교회), 서기에 임근영 목사(라크라센타 새생명교회), 회계에 손민호 목사(건강한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김나래 기자

교계 행사 및 단신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는 8월 9일 오전 11시 작가의집(2410 W.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에서 제28회 크리스천문학인상을 수여한다. 문의) 213- 380-3000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 23425 Sunset Crossing Road Diamond Bar, CA91765)에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를 초청해 한여름밤의 은혜집회를 개최한다. 문의) 909-396-4441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주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7월 31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os Angeles, CA90004)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은 무엇인가"이다. 문의) 213-738-3446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교회 설립 29주년을 기념하며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박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문의) 818-549-9191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미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100% 천연성분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전세계 영화인 축제, 제6회 환태평양 영화제 막을 내리다



환태평양 영화제 중 스텔라 어워즈에서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제6회 환태평양 영화제(The Pan Pacific Film Festival)가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 위치한 재패니즈 아메리칸 컬처럴 커뮤니티 센터(Japanese American Cultural & Community Center)에서 개최됐다.

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리스천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영화제 첫날 열린 시상식 '스텔라 어워즈(Stella Awards)'에서는 "노아와 마지막 날들(Noah and the Last Days)"이 단편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더 엑소더스(The Exodus)"가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테드 베이어가 최고 감독상을, 이장호 감독이 설립자상(Founder's pick)의 영예를 안았다. 베스트 미션(Best Mission)상의 영예는 "Who are the Chinese?"에게 돌아갔다.

올해 영화제에는 10개 이상 국가에서 출품된 100여 편의 장/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가운데 입상작 32편이 무료로 상연됐다. "박해받은(Persecuted)", "소금(Salt - A Thanksgiving Story)", "숭고한 전나무(Noble Fir)", "파이트(Fight)", "컴 팔로우미(Come Follow me)", "더 퍼펙트 웨이브(The Perfect Wave)", "어롱 웨이 오프(A Long Way Off)"와 함께 한국 작품 "저스트 텐 미닛스(Just 10 minutes)", "블랙 가스펠(Black Gospel)"도 상영됐다.

또 25일과 26일에 걸쳐 8개의 그룹이 공연을 펼쳤고 이장호 감독, 스티븐 맥이비티(영화 '패션오브크라이스트' 프로듀서), 마크 조셉(영화 '데프트 비하인드' 제작자), 테드 베이어(무비가이드 제작자), 브라이언 고다와(할리우드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러스티 마틴(배우) 등 다양한 영화인들이 참여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26일 저녁에는 이장호 감독의 "시선(God's Eye View)"과 복한 지하교회 실상을 다룬 김진무 감독의 "신이 보낸 사람(Apostle)"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16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사우스베이한인교회가 16주년을 맞아 27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진 목사)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10시 40분에 교회 본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금까지 왔다.

예배는 안대진 목사의 사회, 김경복 장로의 대표기도, 김성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성공적인 이민생활'(창세기 45:8)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성철 목사는 "사우스베이한인교

회가 지난 16년간 고난과 역경과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며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서 믿을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크다. 지난 16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하자"고 밝혔다.

한편, 사우스베이한인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민족 연합예배를 드리며 연합에 힘쓰고 있다.

박기성 기자

동양선교교회 임직감사, "옛날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창립 44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드려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가 창립 44주년 임직감사예배를 27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구자경 장로, 정구현 안수집사, 오은주·한승향 권사가 각각 취임했다.

구자경 장로는 강단 옆에서 무릎 꿇고 답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다. 구 장로는 "한분 한분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옛날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겠다"고 밝혔다.

동양선교교회 원로 임동선 목사는 권면에서 "모든 임직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 교회에 덕을 세우길 바란다. 박형은 목사님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사도행



LA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동양선교교회가 지난 27일 창립 44주년을 맞이해 임직예배를 드렸다.

전 13:21-23, 3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는 "신앙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전자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많다'며 "후자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통

해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바라며 사는 사람이다. 신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에 걸쳐 권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창립기념 부흥회를 개최한 바 있다.

맹 토마스 기자

SOW, 청소년 뮤지컬 Perfect People 공연



청소년 문화사역 단체 Seeds of Worship의 제4회 정기공연인 뮤지컬 Perfect People에 출연한 학생들

청소년 문화사역 단체 Seeds of Worship(SOW)의 정기공연인 뮤지컬 Perfect People이 나침반교회에서 지난 25일 성대히 열렸다. 여러 교회에 출석하는 1학년에서 12학년 청소년 50여 명으로 구성된 SOW는 올해로 4회째 공연을 맞이했다. 올해 공연에도 약 4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SOW는 매주 토요일 학년별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신입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을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3 La Habra, CA 90631)에서 개최한다. 한편, 이 단체는 청소년 사역에 목말라하는 교회들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형 교회를 찾아가는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 문의 : 714-904-8434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증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러턴지점: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 1일부터 - 서부만영점) T.213.453.6624 (마리팅마켓점)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희자가격	\$90	240g 소희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프랭클린 그래함, “미국 교인들 성경 가치 위해 싸워야”

동성결혼과 낙태 합법화에 맞서 줄 것 촉구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컨퍼런스에서 설교하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가치를 사회 속에서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함 목사는 미국 기독교 매체인 디시전 매거진(Decision magazine) 최신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천국은 겁쟁이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앞서 올해 초에도 미국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권고로 ‘미국을 다시금 기독교적 가치의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한 바 있다.

그래함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속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 없는 사명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존재 이유”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들”이라며, “사람들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정죄한다고 비난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후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 5월에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독교 가정단체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컨퍼런스에 참석,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전한 바 있다.

그는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믿는 자로서 맞서 싸워나가야 할 문제들에 맞서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며,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선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겁쟁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디시전 매거진에서의 칼럼에서 현재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과 낙태 합법화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성애와 낙태는 도덕적 문제에 속한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미국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고 통탄해 했다.

그래함 목사는 각종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해 왔으며, 미국 기독교계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는 또한 낙태와 피임을 연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오바마케어(Obamacare)의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하다.

손현정 기자

욕쟁이 예수님과 술에 찌든 사도들? 美 TV 드라마 논란

보수 교계, “기독교 신앙 조롱하는 것” 항의

“빌어먹을 믿음을 좀 가져보라 고.(Do ya'll have any f-----g faith?)”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으로 묘사된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 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예수님은 어떨까.

2천년 전, 예수님은 가난한 데다가 교육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오늘날이라면 예수님의 발길이 처음으로 향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미국 TBS 어덜트스웬의 신작 코믹 드라마 ‘블랙 지저스(Black Jesus)’는 아마도 이러한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상상력이 좀 과했던 걸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흑인 빈민가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술과 약에 찌든 ‘리얼한’ 건달들로 묘사된 데에 미국 보수 기독교계가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미국 보수 여성단체인 원밀리언맘즈(One Million Moms)는 “블랙 지저스’는 주님에 대한 조롱”이라며, “예고편이 욕설은 물론 주님의 이름까지 남발하면서 불쾌함을 유발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한 “뿐만 아니라 폭력과 부적절한 제스처 등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묘사한다”며,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원밀리언맘즈는 회원들과 미국 교인들에게 방송사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어덜트스웬과 같은 방송사는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할 것이다. ‘블랙 지저스’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또 다른 시도이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이들은 밝혔다.

미국 보수 목회자들 역시 분노를 드러냈다. 시카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in Chicago)의 담임 목회자 데이빗 로저스 목사는 TBS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이 TV 프로그램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자 조롱이다. 이 프로그램의 방영 계획을 취소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목사는 또한 자신의 서한을 미국 내 모든 교회에 보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TBS에 대한 항의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또한 미국 대중문화가 점차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띠고 유독 기독교인들을 우스꽝스럽거나 비호감을 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데에도 유감을 표하고, “유대교인이나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시도들을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상에서 보수 교인들의 ‘블랙 지저스’에 대한 반발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국제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까지 방송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 측은 보수 교계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블랙 지저스’의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블랙 지저스’의 예고편은 “가장 기다려 왔던 재림,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느끼라” 등의 홍보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블랙 지저스’는 현대사회와 교회에 대한 ‘풍자’로 봐야 한다고 방송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데렉 레이라는 이름의 한 교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프로그램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위 사람들을 향한 우리 안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블랙 지저스’는 8월 7일 첫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

손현정 기자

美 장로교, 오바마에 이-팔 휴전 중재 촉구

미국장로교(PCUSA)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즉각 휴전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장로교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황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 분쟁이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은 비양심적이다. 미국이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7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 것처럼, 휴전과 협상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이 분쟁을 끝내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동조하여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협상이 다시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그레이디 파슨스(Grady Parsons) 부총회장, 제21

회 총회 진행을 맡은 히스 K. 라다(Heath K. Rada) 장로, 장로교 선교기구 사무총장인 린다 브라이언트 발렌타인(Linda Bryant Valentine) 장로 등이 서명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달 20일 휴렛팩커드(HP)·캐터필러(Caterpillar)·모토로라솔루션스(Motorola Solutions) 등 친이스라엘 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강혜진 기자

항소법원, 버지니아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버지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제4순회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에 대해 28일 판결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나 주 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은 보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만약 주정부가 8월 18일까지 상소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발효된다.

2대 1로 내려진 판결에서 헨리 플로이드 판사는 “결혼에 대한 버지니아 주의 연방주의적 관심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 버지니아 주법의 결혼할 권리에 대한 불법을 용

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주민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임을 의식한 구문이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동성결혼 금지법 결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또 그는 “동성결혼이 어떤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동성결혼을 거부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영신 기자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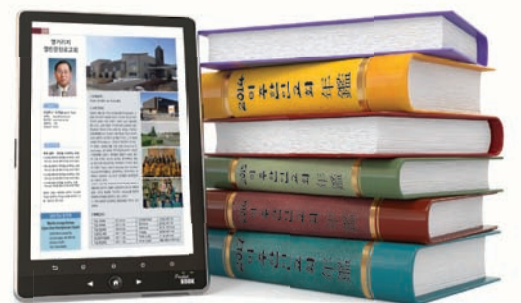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머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한인교계연감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및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며, 8,000여 미주교회와 기관(선교, 봉사, 신학교, 기도원, 기독교서점 등) 등 확실한 정보를 통해 미주한인이민과 교계에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감임박
광고/리스팅**



스마트폰 앱

수집된 모든 교계의 정보들은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선교적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와 연결되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양면 2p광고 : \$2,000



1/2면 0.5p광고 : \$500

▶ 전면 1p광고 : \$1,000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요한계시록 7:9-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라도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신약성경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원죄와 자범죄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성결의 상태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영적 신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숫자에 대한 숫자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7:1-8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열거되면서 한 지파에 만 이천 명씩, 십사만 사천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은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율법에 준하는 증인을 상징하며, 3은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며, 5는 다름을 통하여 전쟁하는 것이며, 6은 666으로 끝나는 사탄의 숫자를 말하고, 7은 삼위 하나님의 3과 이 세상의 4가 합쳐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연합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 수라고 하여 만수(滿數)라고 하고, 12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 열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고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도 맛디아를 세우심으로 다시 열두 사도의 숫자를 채우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령의 성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며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대의 수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숫자로는 한 지파에 만 이천 명씩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 의미의 만 이천 명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정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 사천 명도 문자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령의 성과로 기대하시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의 종려가지는 올림픽 때 월계관을 만드는 잎사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21:9)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 양쪽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환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 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상속하여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그리스도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목자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1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삼서 1:1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장로 중 하나는 묵시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주시고 회개와 신앙고백도 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뒤에도 마귀와 짝하고 죄악에 휩쓸리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죄책감이 몸부림치며 진지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이 폐단이 되어 자신이 잘못된 일도 잊어버리고, 때론 일부러 잊어버리기를 원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일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일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여 애끓는 회개를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고 하게 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죄악에 찌든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홍같은 붉은 피에 더러워진 옷을 씻었는데 흰옷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12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공중 권세잡은 마귀가 행세하고 판치는 생지옥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 소굴에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력이 부단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 피 흘려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적 신부가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그분과의 인연을 지속하고 더욱 깊어지도록 원수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들의 흰옷을 더럽히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

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의 심지가 약하여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마귀에게 굴복하여 흰옷을 더럽히고 나면 히브리서 6:4-6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한 말씀처럼 다시는 그 인생을 회개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그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인생은 넘어지기 쉬운 수박에 얹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가 흰옷을 걸레처럼 더럽혀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자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세 소망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분단된 나라로서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더욱 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15절 이하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이 변절되면 그 흰옷은 금방 더럽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힘 있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아빠, 10년 뒤에도 아빠가 운전할거야?

요즘 아들 둘이 번갈아가며 운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에서부터 교통 신호등과 이정표를 읽는 법, 그리고 도로주행에 이르기까지 방향 동안에 속성으로 운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옆 좌석에 앉아있는 저는, 저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함을 느낍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절감합니다. 운전석 옆의 조수석이 이렇게 피곤한 자리인 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 맞는 사람처럼 팔 다리가 저립니다. 아마도 옆의 손잡이를 짊어주면서 용을 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독 큰 녀석이 운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불안할 때마다 “아들아! 아빠가 할까?” 물어보면, 큰 눈이 점잖게 타이르듯 제게 한 마디 합니다. “아빠, 10년 뒤에도 가족들이 차를 타면 아빠가 운전할거야?” 인정하기 싫어도 그때가 되면 분명히 60을 훌쩍 넘긴 저보다 젊은 아들 녀석들이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해 보여도 미래를 위해서는 지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금 자기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의 돈을 허랑방탕하게 관리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한 불의한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종에게 시간의 말미를 주고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해고를 당한 종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무엇을 해 먹고 살까? 땅을 파며 노동을 하자니 늙어서 힘이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정리를

하도록 준 시간마저 악하게 사용합니다. 주인에게 물건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빌려간 물품의 수량을 절반으로 줄여 거짓 차용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쫓겨난 후에 자신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이 사악한 종을 향해 “참으로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이 배은망덕한 종을 주인이 똑똑하다고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썩어져 갈 재물을 뇌물로 삼아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을 놓쳐 버린다면,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산 사악한 종만도 못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게 될 우리의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귀로 듣는 설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은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한 번의 설교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설교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설교라고 해서 듣는 성도들이 모두 은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리 많은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은혜 받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러는 한 주간의 피곤이 예배시간에 몰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해도 설교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옥도와 같은 말씀의 밭을 일구라고 그토록 강조하셨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루해 지기 쉬운 말씀을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좋은 실천방안 하나로 기도로 설교를 듣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는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한다. 새벽기도만 해도 일주일에 최소한 일곱 번의 설교를 듣게 되고 금요예배, 기타 예배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이면서도 가끔씩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래서 내 나를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 중의 하나는 강

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제목으로 삼아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 그 즉시 마음 속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 시간인 동시에 기도의 시간도 되어 일석이조인 셈이고 이렇게 들으면 말씀 듣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때로 약간 지루한 설교도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함을 느낀다.

굳이 이런 방법 없이도 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나 설교자나 듣는 성도나 모두가 부족한 우리를 일신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피차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말씀 생활에 날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Hard: Difficult or Time Consuming?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특정 단어의 “정의(definition)”가 교사 또는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차이(gap)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필자는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때때로 “어렵다(hard)”란 단어의 정의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느낀다. 학생들은 보통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 “It’s hard”란 말을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그 뜻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Well, it’s just hard”라고 반복한다.

필자는 이런 대화를 기회로 삼아 “hard”란 단어의 뜻이 “어렵다, difficult”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It takes a lot of time”인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거의 모든 경우 후자라고 말한다. 즉, 학생들이 말하는 “어렵다”란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나 과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어렵다”란 것이 결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소유한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이 “어렵다”란 뜻이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인지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많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다”인지 정확히 생각해 보게 해야 한다.

자, 다시 학생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MMO(다수가 동시가 접속하여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나 다른 컴퓨터 및 게이밍 기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많



제이슨 송 교장
새인약초중고등학교

이 하는 학생들은 “레벨(level)”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이런 레벨은 “난이도(difficulty)”에 따라 구별되고, 또 각 레벨의 “목표(objective)”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레벨이 높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게임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게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않는다. 그냥 목적을 이루는데 시간이 더 소모되고, 새로운 배경과 목적이 소개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공부와 흡사하다. 이전 레벨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얻은 “공적”과 “아이템”을 소유해야만 또 새 레벨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절대 그 레벨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계엔 “Game-ification”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쉽게 말해 공부를 “게임같이 만들어 주자”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일종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스티커를 주고, 차트에 레벨을 올려주고, 랭킹과

타이틀도 주며, 공부할 내용도 “레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한다.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부를 게임같이 인식하는 것이 초, 중학생에게는 통하지만, 고등학생에겐 시시할 뿐이란 점이다.

공부를 즐기는 학생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공부란 그 자체는 그리 재미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아무리 재미있게 접근하려 해도 거기엔 한계가 있다. 세상의 놀이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재미없는 게 공부다. 결국,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충분한 지식과 기능(skill), 그리고 능력(ability)를 소유한 학생을 만들려면 지름길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유명한 저자 스티븐 커비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칼을 갈고 기회를 기다려라.” 그가 말한 “칼갈기”는 바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배우고 성장하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공부에 대해선 “재미가 없다”, “선생님이 지루하다”,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대해선 “최고의 프로그가 되겠다”, “게임 없이는 못산다” 또는 “게임 제작사 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 이런 학생들이 “어렵다”란 말을 사용해서 “하기 싫다”, “다른 것을 하고 싶다”란 진심을 변명하도록 놓아 두어서 안 되겠다. 공부, 학교가 “어렵다”라고 변명하는 학생과 대화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자. 그리고, 명쾌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가 되자.

반주자 청빙

자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Desire Ave.Rowland Heights CA 91748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0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창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4

오늘은 심장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병들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질환 등으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 첫째로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폐색과 관련된 포괄적인 상태를 말하고,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심부전증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 원인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염증성 심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세균이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심낭염, 심근염, 폐색성 심질환이 있는데 주로 세균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네번째로 심장판막질환은 심장 판막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승모판막질환과 대동맥판막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환에서 예방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도 치유할수 없다면 이 또한 병명을 알기전과 무엇이 다른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을 잠시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노후시대의 기적이였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된 곳에서의 점차적인 귀환시대 즉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라는 유대인 포로가 포로지에서 출세하여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되었는데, 자기 조국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성과 성문들이 파괴되고 불타는 이야기를 듣고, 슬피하면서 성과 성문들의 재건을 위하여 유대인을 모으고 또 재건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중에 도비야와 산발랴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의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고,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

에서 큰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2장19절 "호른 사람 산발랴와 종이 되었던 암논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라는 말로 시작하여 4장과 5장, 6장에 걸쳐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2장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방해공작을 기도와 방비를 함으로서 결국에는 성벽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후에 학사 에스라를 초빙하여 성경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8장5절6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라 에스라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와 함께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날의 예배방식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다시 심장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료방법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질환의 공통점은 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될수없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세균의 침투도 막아줍니다.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2주후에 병원에 가서 피의 수치를 재어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수있고, 의사도 깜짝 놀랄정도로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성벽의 재건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훼손되었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대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교단장협,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긴급 성명서

광화문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천막 방문해 위로와 협력 다짐



교단장협의 주요교단장들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만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교단장협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주요교단장 김동엽 총회장(예장통합), 안명환 총회장(예장합동), 이종복 총회장(예성), 원회장(기성), 고충진 부총회장(기하성), 2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후 교단장들은 바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천막을 방문해 단식 13일째인 3인대표 중 김영오 씨(故 김유민 부친)와 세월호 대책위원 등을 만나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세월호대책위와의 의견수렴과 협력을 위한 장구를 장현일 사무총장(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이 맡기로 하고, 한국교회교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다음 주 초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세월

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여·야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일부 선동기들에 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등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쟁의 산물로 삼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 생명존중과 안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국민들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기성 기자

“기독교 진로교육 목적, ‘출세’ 아닌 ‘하나님 나라’ 돼야”

박상진 교수, 기교연에서 ‘기독교학교의 진로교육’ 주제로 강연



기독교학교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상진 교수

2014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 기독교학교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 28-3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새문안홀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는 기독교학교 및 교회교육 관계자, 학부모, 신학생 등이 참여했다. 연구소장인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의 첫 강연에서 은사의 개발과 기독교적 진로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진로교육은 기독교교육의 공통분모"라며 "중고등부 기독교교육의 패

라다임이 진로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중고등부의 살 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교육학자인 윌리엄 파이너는 '커리큘럼은 삶의 여정(Life Journey)'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커리큘럼을 교과서나 교재로 생각하지만, 파이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커리큘럼이라 여겼다"며 "진로교육의 첫 번째는 아이들 각자의 삶의 소중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살아있는 기독교적 진로교육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독특성과 다양성에 주목하는 커리큘럼이 돼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은 무모하며, 아이들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어 '커리큘럼'의 유래는 라틴어 '쿠레레'로, 과거에는 말들이 달리는 경주장으로 해석됐지만 사실은 말들이 달려가

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즉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가 아이에 따라 움직여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진로교육은 기독교교육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독교교육이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예수님의 제자교육이 진로교육이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각자가 진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과정이었다. 기독교교육의 흐름 자체가 진로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관성 쌍둥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교육의 대원리이며,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은사 개발과 진로의 관계를 '은사-소명-자기발견-독특성-나의 길-공동체-하나님 나라'까지 7단계로 설명했다. 기독교 진로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에게 100%의 가능성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 이해이다. 누구와 비교해서 2% 모자란 것이 아니다"라며 "기독교교육과 직업교육의 핵심은 은사에 불을 붙여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부터

어느 순간 비상하는 것이다. 단순 지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소명에 대해서는 "은사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 은사에는 방향이 있다. 동전의 양면같이 한쪽이 은사이면, 다른 쪽은 소명이다. 릭 워렌 목사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이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그 소명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두 번째 단계"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은사와 소명에 응답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은사 개발은 내면적 자기를 찾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규정된 나였지만, 은사와 소명에 응답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다"며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자아를 찾는 '삶의 여정'을 돕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맞게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네 번째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하나 독특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개의 잣대를 가지고 계신다"며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잣줄'에 매여, 이 나이가 되도록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신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남들이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모험심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마이 웨

이(My Way)'를 깨닫는 단계"라고 했다. 또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며 "이로써 확실히 공동체가 아닌, 은사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여 각자의 독특함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비전이자 기독교학교의 비전이 돼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은사로 모자이크 된 나라라고 정의하고 싶다"며 "세속적 진로교육은 자기 출세로 나아가지만, 기독교적 진로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가면, 은사는 더 개발된다. 비전은 은사 개발의 어머니이다. 비전이 은사 개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세속적 진로결정 과정은 아이의 진실이 아닌, 부모의 허영심에서 출발한다. 부모의 욕망이 아이를 '일반화된 타자'로 만든다. 대량생산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획일적 교육 속에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개인적 출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 뿐"이라며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기독교교육은 단순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은 지게 된다. 기독교적 진로교육은 전략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영적 성숙이 도모되지 않는 진로교육은 맹인이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는 교회와 가정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아이의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개종한 수단 여성 귀환,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 응답”



수단의 기독교 박해를 이겨낸 메리암 이브라힘이 무사히 수단을 탈출했다. ©ACLJ

수단에서 개종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된 메리암 이브라힘(Meriam Ibrahim)이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그를 위해 일해 온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기쁨을 표하고 함께 기도해 준 세계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ACLJ)의 조던 시킬로우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브라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준 것에 감사한다. 또한 이브라힘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준 센터의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ACLJ는 각국 정부와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브라힘과 그 가족의 종교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미국 시민들이 보여 준 노력의 결실로 지금 이브라힘과 그 가족은 이탈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곧 미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ACLJ는 이브라힘이 수감되어 있을 동안 미국 정부가 그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 여기에는 177,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올해 27살의 이브라힘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제공한 항공편을 통해 로마에 도착했으며, 이후 바티칸에 초대되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위로와 축복을 받았다. 바티칸 영빈관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교황은 이브라힘과 그 가족에게 “신앙을 지키는 용감한 분을 보여 준 것이 감사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현지 이슬람법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종교가 정해졌다. 그러나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개종했다는 혐의를 부과 받고 대형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선고를 받을 당시 이브라힘은 임신 8개월 상태였다. 수단 법원은 이에 이브라힘의 사형 집행을 2년 뒤로 연기했다. 이브라힘은 지난 5월 감옥에서 딸인 마야를 낳았으나 다리에 족쇄를 찬 채로 출산했고, 이 때문에 마야에게 장애 증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수단 법원의 비인도적이고 종교탄압적인 판결에 항의하며 이브라힘의 석방을 촉구해 왔고,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도와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압박 끝에 수단 법원은 지난달 이브라힘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브라힘의 고난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석방 후 출국 길에 올랐으나 여행 문서에 기독교식 이름이 쓰여 있다는 이유로 다시금 체포 당했다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미국 정부는 이브라힘이 남편의 나라인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수단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브라힘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이끌어 온 또 다른 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즈(Open Doors USA)의 데이빗 커리 회장은 “이브라힘이 자유를 되찾았다는 소식은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온 수많은 세계 교인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도전은 신앙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박해들이 땅에서 없애는 일”이라며, “수단을 비롯한 세계 많은 지역의 여성들 모두가 (이브라힘처럼)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때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야 한다”며, “이제 이브라힘은 자유를 얻었지만 나머지 수단 여성들은 아직도 속박 가운데 있다”며 세계 교인들이 앞으로도 수단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브라힘이 석방되기까지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지원과 연합된 기도를 촉구해 온 세계복음연맹(WEA)도 그가 이탈리아에 안전하게 당도했고 미국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프 터니클리프 총재는 “이브라힘이 이제 진정한 자유롭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느낀다. 이브라힘을 위해 기도해 준 많은 사람들과 각국 정부, 특히 이탈리아 정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동시에 “신앙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감되어 있고,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기도와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세계 교회가 박해 받는 교인들의 편에서 서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신은 없다” 던 호킹, 이번에는 안락사 찬성 논란

“자살은 모든 사람 권리” 주장... 영국 교계 반발 예상

영국에서 교계와 일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하면서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 과학자인 호킹 박사(72세)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그는 “지속적인 병마와 싸우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물들이 고통 받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가?”라며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역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실제로 시도에 옮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호킹 박사는 20대 초반에 2-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을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이 그 결정권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기관절개술을 받았을 때, 나는 숨을 쉬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숨을 쉬려는 몸의 반사 작용이 너무 강했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되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2주간의 기간을 두고,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직접 지명한 2명의 의사

를 증인으로 두는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죽기를 원하는지와 타의에 의해 압박을 받아 죽음을 결정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어야만 한다”며, “이 보호장치가야말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 상원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교계 지도자들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는 1961년에 제정된 자살 방지 법안에 따라서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현재 자살을 돕는 행위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영국 교계 지도자들은 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가톨릭 교회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을 포함해 21명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명에 서명했다.

한편, 호킹 박사는 지난 2010년에도 저서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에서 ‘자발적 창조(spontaneous creation)’의 개념을 제시하며 “우주나 인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종교교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며, “신학은 불필요하다”고도 선언했다. 이에 당시 종교계는 물론 기독교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호킹 박사가 “과학과 신학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현정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수기치료의료신교사 양성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에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원일, 이음,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신교사 양성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넷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현연성**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구약모임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hnhyo@hanmail.net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진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몰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6층 체플름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에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노를 배우고, 이인(세물)을 배우고, 이인(가정)을 배우고, 이인(성경)을 배우고, 이인(영혼)을 배우고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 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세례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인병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선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 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 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목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민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이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양생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일양생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8: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트루스채플)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6회기 힘찬 출발

이미션 목사-전희수 목사 회장 이취임, 교계 인사들 참석해 축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6회기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가 21일 뉴욕에서 개최됐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제6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21일 오전 10시 30분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지역의 많은 남성 목회자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1부 예배는 장경혜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이승진 목사(교육분과위원장) 대표기도, 조상숙 목사(회계) 성경봉독, 미주한인여성목회자 살렘합창단 특송,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회장) 말씀, 양승인 목사(PA지역 총무) 봉헌기도, 김에스터 목사(전 NJ지역 총무)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이취임식은 김경숙 목사(총무)의 사회로 이미션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스티븐 인계식, 전희수 목사(회장) 취임사, 신임원 및 지역협동총무 임명장 수여, 김금옥 목사(초대회장) 권면, 황동익 목사(뉴욕목사회장) 축사, 박진하 목사(미동부기아대책기구 회장) 축사, 영상축하 메시지, 감사패 증정, 화환증정, 폐회 및 오찬기도 이광희 목사(AG한인총회 직전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직전회장 이미션 목사는 이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무슨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미션 목사는 "엄위한 여성 목회자들이 되어서 어디에 내어 놓아도 당당한 실력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이 회에서는 많은 만남이 이뤄졌다. 새 회장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로 부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에스터가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위기의 때를 생명의 때로 바꾼 것처럼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일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6회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큰 포부를 밝혔다.

목사회장 황동익 목사는 축사에서 "앞선 분들이 훌륭한 전임자들이기에 훌륭하게 단계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는 큰 연합회나 작은 연합회를 두루 섬기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꼼꼼하게 하며 능력을 인정 받았다"면서 "미주여성연합회가 크게 부흥해서 앞으로 7,8,9회 회를 거듭할수록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대책 박진하 목사는 축사에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여성목회자협의회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가 기도 가운데 정해진 줄 믿는다"면서 "세상이 말세라고 한다. 여성 목회자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각성운동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밝은 빛을 내시는 여성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끝맺음이 좋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침례교협의회, 목회자 가족 수련회 성료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 목회자 가족 수련회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권석균 목사)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지난 7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에서 '쉽, 그리고 새로운 도약'(마 11:28-30)을 주제로 열렸다.

고독재 목사(부회장, 호산나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도착예배는 손종문 목사(꿈꾸는자침례교회)의 찬양인도, 이강수 목사(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의 기도, 김상민 목사(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1부총회장, 웨이트빌침례교회)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민 목사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날을 준비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하자"고 전했다.

주강사로 초청된 홍문공 목사(사랑침례교회)의 '전도사역자를 위한 사랑의 터치' 강의를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오후에 진행

김 앤더슨 기자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여름 핫 세일!!!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 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찰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민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도 뜰아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박사로서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지나친 실용주의 추구하는 미국형 선교신학 지양해야”

교회 목표, ‘교회성장’ 아닌 ‘하나님 나라 성장 위한 선교’ 돼야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지난 35년간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따라가면서, 가시적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 선교활동은 실패라는 지나친 실용주의적 평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전도종족 선교와 재배치를 강조해도 선교사들은 결국 열매가 빨리, 쉽게 나오는 지역과 방법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난과 인내, 시간이 소모되는 사역들은 구시대적인 개념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자 선교대학원장인 이현모 교수는 ‘한국선교KMQ’ 최신호에서 최근 35년간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복음주의 선교운동, 성경적 측면에서 방향 정해야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성격과 한계”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이 교수는 “한국선교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9년을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출발점으로 간주할 때, 올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난 지 35년이 된다”며 “한국교회 선교운동은 주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그룹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 디자인되고 주도됐으며 “이들은 출신 학교의 성향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현모 교수는 “서구교회의 선교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선교의 후발주자로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육상 선수의 기량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패스트 팔로워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그런 한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새로운 필요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다. 패스트 팔로워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이현모 교수는 1974년 로잔대회 이후 25년 만에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1999년 이과수 대회에서 주제 강사였던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의 비평을 언급하며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에스코바는 이 대회에서 미국의 선교신학을 ‘관리적, 혹은 경영적(managerial) 선교학’, ‘마케팅 개념이 지배적인 선교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물론 이 선교학이 전통적 선교방법이 가진 부정확성을 줄였다. 하지만 에스코바는 통계와 수치로 축소될 수 없는 선교 사역의 여러 양상이 중요성을 잃게 되었고, 신학적 문제들을 덜 강조하고 방법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 결국 선교학이 선교방법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진행되는 선교방법 중에 성경적이고 신학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들도 제공돼 점차 선교운동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현모 교수는 “에스코바의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에 비중을 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따라왔던 선교신학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목표지향적, 성취지향적인 미국 문화의 영향이 한국



이현모 교수

선교운동에 중심가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선교신학은 인간적 시도”에 불과하다는 약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긍정적 효과로는 “선교활동이 도표와 그래프로 표시되고 디지털화된 것은 젊은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동기 부여에 유리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한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처한 위기 상황

이현모 교수는 한국 선교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며 표면적 정체의 원인은 경제적이고 양적인 교회성장의 정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 선교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부흥운동으로 인한 급속한 교회성장과 빠른 국가 경제성장, 올림픽 및 월드컵, 한류 바람의 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교회성장이 정체기에 이른지 이미 20년 정도 지났고,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성장 정체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내면적 영향으로는 “한국선교가 교회 성숙의 결과라기보다 교회 외적 요인으로 급성장했기 때문”이라며 “교회의 선교에 대한 도전과 교육을 통해 선교운동이 일어났기보다 교회 밖의 요인, 곧 파라체치 운동의 영향, 여행 자유화, 선교한국 같은 초교파적 운동의 영향, 초교파 국제선교단체들의 도전과 개인적 헌신 등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개교회의 성숙한 선교 도전과 교육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것이 정체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성숙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 선교는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교회 유행이나 프로그램이 되고 유행의 시기가 넘어가면 기울어진다”며 “2000년도 초반, 선교는 유행의 시기를 놓치고 상담이나 다른 관심으로 교회 유행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현모 교수는 특히 세계 경제위기, 기독교 선교 제한 국가의 증가 등 외부요인을 변화시키는 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선교를 교회의 여러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닌,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선교가 해외선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종족에 대한 부담이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선교는 한 번의 호소와 결단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속적 교육과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회의 성숙의 열매로 선교 사역이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목회자들의 선교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더는 교회성장이 교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장’(Kingdom Growth)이 교회의 목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기성 기자

작은 고생을 큰 기쁨이 삼키는, 선교의 길에 초대합니다

청년학생 선교동원 위한 ‘선교한국 2014’, ‘함께’ 주제로 개막



선교한국 2014 첫날 저녁집회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있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청년학생 선교동원을 위한 연합운동 ‘선교한국 2014 대회’가 7월 28일 평택대학교 90주년기념관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박 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 ‘함께(Together)’를 주제로 주관단체인 DFC(제자들선교회)를 비롯한 29개 회원 선교단체들이 참가한다. 주최측은 주제에 대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과 함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등 세 가지의 ‘함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교한국 2014에서는 5일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성경강해를 비롯해 매일 저녁 경배와 찬양, 다양한 세대와 사역자들의 간증이 이뤄지는 ‘아름다운 땅끝 소식’, 영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함주회’, 3일간 40개 영역 120개 주제강의가 펼쳐지는 ‘영역별 주제강의’, 다양한 선교지 정보와 문화체험 등이 준비된 ‘선교 한마당’ 등이 진행된다. 또 선교단체 박람회, 300여 개의 소그룹 모임, 선교도서 박람회 및 오늘의 책, 목요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침묵의 시간,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오아시스’ 등이 마련돼 있다.

첫날 저녁집회 축사를 전한 한정국 선교사(KWMA 사무총장)는 “작은 고생을 큰 기쁨이 삼키는 것이 바로 선교로, 저도 30년을 선교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며 “이 선교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 소명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인 김영영 목사(DFC 대표)는 개회를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되기를 간구하셨다”며 “이번 대회 주제는 ‘함께’로, 예수님 말씀처럼 모두 하나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한국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선교한국 주요 행사인 성경강해에서는 ‘로잔 2010 대회’와 미국 학생선교대회인 ‘어바나 2012 대회’에서 성경강해를 맡았던 카리스토 오데데 목사(케냐 나이로비 카리스마틱교회)와 무슬림 선교 전문가인 김철수 케냐 선교사(GMS)가 강사로 나선다. 매일 오전 집회에서는 이현모 교수(침신대), 박성민 목사(한국 CCC 대표), 곽아람 선교사(침례교선교회), 앤드류 김 선교사(GMP), 이경철 목사(낮은울타리교회), 김동춘 목사(SFC 선교부 총무) 등이 강사로 나선다.

첫날 저녁집회 때,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전 1:17-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카리스토 오데데 목사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2년 전 가족들과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운전 중 길을 잃었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밤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타이어까지 펑크가 났다. 오데데 목사는 깜깜한 가운데 밖에 나가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할지, 아니면 펑크가 났음에도 차 안에서 계속 운전을 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구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에서 계속 운전하기로 결심했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이전에는 빛이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그 날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 무작정 빛을 향해 계속 운전을 했는데, 그곳은 국립공원 직원들의 숙소였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거기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길도 안내받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데데 목사는 “제 경험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상황이었고, 어둠 속에, 위험 속에 빠져 있었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우리를 구해준 것은 바로 빛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길을 잃었고, 방향을 상실했으며, 어둠에 처했지만, 어디로 향해야 할지 비추는 빛조차 없다”며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뿐으로,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천년 전 바울이 살았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좋은 소식(복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십자가는 엑세리나 목걸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우리는 십자가에 의탁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하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각자의 관심과 성향에 맞는 선교단체를 찾을 수 있는 ‘선교단체 박람회’는 51개 선교단체 및 신학교에서 참가한다.

선교사나 선교단체 사역자 등 다양한 선배들이 영역별 주제강의 이후 강의 내용에 대한 심화학습과 대회 구체적 활동을 돕기 위해 준비한 ‘멘토 시스템’에서는 선교사 240명이 봉사한다.

이대웅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빼앗겨 허리가 아프신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없이!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이주섭 목사 특별기고]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는 잘못된 해석의 전통



이주섭 목사
성서지리연구원장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안식일 지키는 계속될 것이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유대인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대를 따라 안식일의 규정은 새롭게 해석되었고 적용되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생활 도구들이 발명되면, 유대 랍비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해석하였고, 안식일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냉장고의 문을 열면 냉장고 안의 작은 전등은 자동으로 켜진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과 냉장고 안의 작은 전구가 켜지는 것은 별개의 행동임에도, 안식일에 냉장고의 문을 열 경우 의도하지 않았어도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 안의 작은 전구를 빼 놓는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토요일 하루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유대 민족의 정신이며, 유대 문화의 핵심이다. 안식일을 제외시킨 채 유대 민족을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잘못된 전통에 따른 안식일 지키이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를 치유하신 사

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사건은 표면적인 안식일 규정에 매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걸림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병자가 안식일에 돛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었음을 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요 5:16).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규정을 읽을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

먼저 유대인들의 안식일 핵심 규정에 대해서 다시 본다. 출애굽기 20:8-11절에 기록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라하'는 영어의

work, labor와 충분히 일치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되었건 십계명의 한 계명은 '일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다.

'일하지 말라'는 이 규정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 되어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바로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곧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메시아, 안식일에 일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더하셨다.

유대인들이 전통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안식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안식일 재해석에 주목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일하지 말라는 것과 일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이것은 기존 안식일 이해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분노시키기 위해 충분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의 핵심 의미가 아닌 그림자에 해당된다. 안식일의 핵심 의미는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은 엿새 동안 일하던 것로부터 자유함이 있다. 매인 것로부터 놓임(자유함), 바로의 노예되었다가 해방됨(신 5:15), 속박된 것로부터 구속,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병에 매어 있던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그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놓임을 받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매인 것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모습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유대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다. 뉴욕의 유대인 구역에 거주하는 한 유대 종교인이 어느 날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그들에게 혼과 같다.

그런데 현대 유대 종교인들보다 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다. 그런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

[배효식 교수의 영시 해설]

PEACE(평화) – Rupert Brooke



배효식 교수
미서부침례신학교

Now, God be thanked Who has matched us with His hour,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때에 맞추어 주셨으니 감사를 받으셔야지,
And caught our youth, and wakened us from sleeping,
그리고 우리의 젊음을 불드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셨으니,
With hand made sure, clear eye, and sharpened power,
확실하게 손으로, 눈을 밝게 그리고 능력을 날카롭게 하시고,
To turn, as swimmers into cleanness leaping,
마치 수영선수 모양으로 뛰어 들어 몸을 청결케 하시고,
Glad from a world grown old and cold and weary,
낡고 병령하고 근심에 찬 세상에서도 즐겁게 하시고,

Leave the sick hearts that honor could not move,
병에도 움직일 수 없는 아픈 마음들,
And half-men, and their dirty songs and dreary,
못난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노래와 쓸쓸함들,
And all the little emptiness of love!
그리고 모든 작은 사랑의 공허를 떨쳐 버리도록 하셨으니!
Oh! we, who have known shame, we have found release there,
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다네,
Where there's no ill, no grief, but sleep has mending,
그곳 거기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다만 잠잘 때의 회복만 있을 뿐이로오,
Naught broken save this body, lost

but breath;
아무 것도 깨어지지 않는 몸, 상실했지만 숨은 쉰다오;
Nothing to shake the laughing heart's long peace there
거기에는 웃음의 긴 마음의 평화를 흔들 자가 없네
But only agony, and that has ending;
그러나 다만 고뇌와 그리고 종말이 있을 뿐이로오;
And the worst friend and enemy is but Death.
그리고 가장 나쁜 친구 그리고 원수는 죽음 뿐이로오.

Rupert Brooke는 1887년 8월 3일에 태어나 1915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채 28살이 안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시인이다. 이 시인은 영국에서 제일 잘생긴 멋쟁

이 시인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명문 Rugby 고등학교와 King's College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수학한 수재이기도 하다. Brooke는 Bloomsbury와 Georgian Poets, 그리고 Dymock Poets 작가 모임에서 활동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이 시인은 전쟁 시인으로서 활약했으며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표현한 시들을 담은 "1914 & Other Poems"가 1915년 4월 23일 그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젊은 시인은 1914년에 1차 전쟁에 자원입대해 Royal Naval Division(영국 해군 부대)에 근무하던 중 지중해 연안 Skyros Greek Island에서 모기에 물려 Sepsis(패혈증) 곧 피가 썩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Skyros, Greece에 묻히고 만다. 이 허술한 섬

구석에 위치한 Skyros는 지금은 영웅 시인의 장소로서 이름이 나 있다. 이 시는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聖像 - Holy Image)을 담고 있다. 인간의 성장은 연약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그리고 신(神)을 모르던 사람이 신을 아는 모습으로 전환(轉換)되고 더 나아가 평범한 사람이 새로운 삶의 모습인 군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시 속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Images)의 향기가 풍긴다.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평화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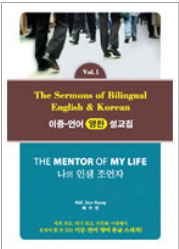


신간추천

나의 인생 조연자

배수영 | 솔라피데 | 316쪽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영한설교집 첫 번째 시리즈 「나의 인생 조연자」가 출간됐다. 저자 배수영 목사는 안양대와 동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 학교에서 선교학 박사(Missiology Cand.) 과정을 마쳤다. 현재 예순글로벌교회(예순 국제선교센터)의 담임으로 사역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묵회에 힘쓰고 있다.



크레이지 러브

프랜시스 찬 | 아드폰테스 | 272쪽

저자의 묵회 철학이 집약된 대표작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의 개정증보판. '크레이지 러브'란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을 말한다. 개정증보판에서 그는 뜻밖의 대성공을 거둔 후 얻게 된 유명세로 교만과 실망을 오고 갔던 그간의 솔직한 심경과 새로운 교훈들을 털어놓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

로잔 운동 | IVP | 2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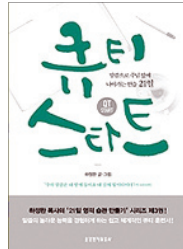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제3차 로잔대회에서 '복음주의 선교'를 좀더 온전하게 규명한 문서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결과물인 이 서약은, 향후 10년간 교회가 중대하게 직면해야 할 이슈들과 각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을 제시한다.



큐티 스타트

하정완 | 생명의말씀사 | 136쪽

일반적으로 '습관을 하나 바꾸는 데 21일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저자는 21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따라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연습해 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날마다 깊이 있는 큐티를 연습하면 큐티 습관이 자연스레 붙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REVIEW

만족은 가까운 곳에,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

책을 읽다 보면, 참 다양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용감하다. 이런 글을 책으로 묶어내다니!'라는 어이 없는 생각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알차네. 정말 충실하게 썼다'는 고마움이 느껴지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지만 '아, 책 정말 예쁘다. 어쩔 이렇게 내용도 예쁘고 편집도 예뻐!'라는, 따스함과 신선함을 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세 번째 경우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읽었습니다. 예쁜 사진과 함께, 짝지만 묵상하기 예쁜 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왼쪽 면에는 예쁜 컬러 사진이 담겨 있고, 오른쪽에는 은혜에 관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오른쪽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사진이 너무나 아가자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글을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경우가 참 부족합니다. 하

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100만분의 1초도 버리지 않으시며, 내 심장박동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흐뭇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 버린 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지 않게 묵상하며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잔잔한 감동과 묵상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하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는 글입니다.

"형들에게 잡혀 구렁이에 빠진 요셉,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애굽에 저 대신 아론을 보내세요.' 모세의 어리석은 말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찢고 풀 대신에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뒤돌아 그분을 저주한 베드로,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세주의 손에 대못을 박은 인간의 손들. 이 때 예수님의 손을 짚 못하게 붙잡은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포기하셨다." 어떤 사진이 왼쪽에 있을지 궁금하시죠? 직접 보세요. 정말 도전이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글입니다. "백 년도 더 전, 어부들이 스코틀랜드의 한 해변 선술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어부가 팔을 휘두르다 그만 여중원원이 나르던 쟁반을 쳤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찻주전자 새하얀 벽으로 날아갔다. 선술집 주인은 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벽을 전부 다시 칠해야겠군요.' 이때 낫선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제가 한 번 손써보죠.'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었다. 낫선 남자는 상자에서 연필과 붓, 물감을 꺼냈다. 이윽고 벽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뿔이 달린 수사슴. 남자



은혜 | 맥스 루케이도 | 264쪽

는 그림 밑에 서명을 하고 음식 값을 낸 뒤에 떠났다. 그는 저명한 야생화가 에드윈 랜드시아 경(Sir Edwin Landseer)이었다. 하나님의 손도 같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실수가 걸작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흠어진 얼룩들을 한데 모아 그분의 사랑을 그려내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밥 러셀이 쓴 「Money : A User's Manual」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기 농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농장 안 호수를 늘 관리해야 하는 데 불평을 늘어놓았다. 풀밭을 초토화시키는 살진 쟃소들도 이만저만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농부는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이 지긋지긋했다. 농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며칠 후, 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서 광고문을 확인해 달라며 농부에게 읽어주었다. 이상적인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농장을 표현한 내용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광고문을 듣고 있던 농부가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소. 농장을 팔지 않겠소. 내 평생 이런 곳을 찾아왔어요."

"만족은 항상 당신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뜻심김지기 이훈 목사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2014년 상반기 기독교 출판계 결산

스테디셀러 강세에... 신학자들 대중적 성경강해서 인기

2014년 상반기 기독교 출판계는 대형 베스트셀러의 부재(不在)와 스테디셀러의 강세 속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들이 이어졌다.

우선 온·오프라인 종교분야 2014 상반기 베스트셀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교 서적'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서점 인터파크 종교분야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1-3위는 <인생 수업>과 <스님의 주례사>, <법륜스님 양장 세트>가 각각 차지했다. 모두 법륜(정토회 지도법사)의 저서이다. 30위권 내에 다른 불교 서적은 없었지만, 베스트셀러를 배출한 것. 교보문고나 예스24 등 다른 온라인 서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책들은 엄밀히 말해 '종교 분야'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에세이로 분류되던 것을 '승려'가 저자라는 이유로 '종교 분야'에 위치하게 했다는 것.

한 온라인 서점 종교 담당 MD는 "에세이가 아닌 종교 분야로 등록되면 분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 '노출 효과'가 커진다"고 귀띔했다. 대중성 있는 기독교 서적들이 종교가 아닌 일반 에세이 등을 선택하는 것과는 정반대 전략인 셈.

기독교 서적만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최근 나온 신간보다는 검증된 '구간(舊刊)'들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스테디셀러가 된 <5가지 사람의 언어>가 인터파크 기독교 분야 상반기 집계 1위를 차지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상 생명의말씀사), <주님은 나의 최고봉(보급판·토기장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IVP)>, <새신자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이상 흥성사)>, <그 청년 바보의사(아름다운사람들)> 등이 20위권에 포진했다.

인터파크 집계 중 신간으로는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세트>와 <성경 파노라마(이상 규장)>, 조정현 목사의 <사순절의 깊은 묵상(한국장로교출판사)> 등이 10위권을 형성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는 아니지만, 1-6월 나온 책들이 모두 반영된 기독교출판협회(회장 민병문 장로) 6월 베스트 순위에서는 신간이 좀 더 많았다. 앞서 언급된 <왜 예수인가?>를 비롯해 김남준 목사의 <서른통>, 조현삼 목사의 <목사님, 구원이 헛갈려요(이상 생명의말씀사)>, 이찬수 목사의 <붙들어주심>, 한홍 목사의 <기도교 에센스(이상 규장)>, 송태근 목사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성서원)>, 김동건 교수의 <모든 사람에게(대한기독교서회)>, 소강석 목사의 <사닥다리 예배자(쿠팡)>, 조병호 목사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통독원)>, 이재철 목사의 <사명자만(흥성사)> 등 유명 목회자들의 최신간들이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기독교 출판계에는 목회자들의 강해집도 여전히 다수 출간됐지만, 국내 전문 학자들의 성경강해집들과 교리서 등도 주목을 끌었다.

이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하

[인터파크 도서] 종교/역학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 집계기준 2014.01.01~2014.06.30		
랭킹	도서명	출판사
1	인생 수업	한겨레출판
2	스님의 주례사	한겨레출판
3	법륜스님 양장 세트	한겨레출판
4	5가지 사람의 언어	생명의말씀사
5	주님은 나의 최고봉(보급판 문고본)	토기장이
6	4영리에 대하여 들어 보셨습니까? (개역개정판/ 포켓판)	순출판사
7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세트	규장문화사
8	WHY JESUS 왜 예수인가?	두란노서원
9	사순절의 깊은 묵상	한국장로교출판사
10	성경 파노라마	규장문화사
11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생명의말씀사
12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3	새신자반	흥성사
14	어? 성경이 읽혀지네	생명의말씀사
15	기도수첩	두란노서원
16	개역개정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두란노서원
17	그 청년 바보의사	아름다운사람들
18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보급판)	흥성사
19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규장문화사
20	순종	두란노서원

종교분야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락과 구원과 같은 이단의 폐해 등으로 '성화'와 성경의 바른 해석에 대한 독자층의 욕구가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학자들은 강해를 주로 교재용으로 편찬했으나, 그들의 논리와 해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표현 등을 대중적으로 새롭게 펼쳐내면서 성도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책들로는 본지에 소개됐던 김구원 교수의 통독 주석인 <사무엘상(흥성사)>을 비롯, 백석대 채영삼 교수의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레서원)>, 김도현 교수의 <나의 사랑하

는 책> 로마서, 길성남 교수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등이 있고, 지난해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차준희 교수의 모세오경·역사서·시가서·예언서 등 <구약 바로읽기(이상 성서유니온)> 시리즈가 나왔다.

번역서로는 먼저 부흥과개혁사의 대작 「ESV 스테디 바이블」이 있다. 출간 전부터 큰 관심을 얻었던 이 책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복있는사람)>와 <삶을 위한 신학(IVP)>, 17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이라 불리는 <매튜 풀

갈라디아서(그책의사람들)>, 좋은씨앗의 존 파이퍼 <로마서 강해> 시리즈 등이 있었다.

이밖에 이슈가 됐던 책들로는 마지막 제자 에버하르트 부시가 쓴 전기로 '복권서트'에 많은 신학생들을 불러 모은 <칼 바르트(복있는사람)>와 교리 논쟁을 불러일으킨 <천하무적 아르벤주의(포이에마)>, 자기계발서와 인문강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공병호의 성경공부(21세기북스)> 등 예의 속도를 자랑하며 3권을 잇따라 펴낸 공병호 박사의 책, 성균관대에서 유학을 전공한 배요한 교수의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IVP)> 등이 있었다.

또 필립 안시의 신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규장)>는 세월호 참사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고난과 불행' 앞에서도 설교해야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행된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지평서원)>도 비슷한 시기 출간됐다.

절판됐거나 출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관심도가 떨어진 도서들의 의미 있는 재출간도 눈에 띈다.

생명의말씀사는 '리폼드 시리즈'를 통해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리차드 벡스터의 <참 목자상>,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등 고전들을 펴내고 있으며, 10년 전 나왔지만 오늘날 더 필요성이 절실해진 리처드 마우 전 풀러신학교 총장의 <무례한 기독교(IVP)>도 확대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대용 기자

사랑해서 뭐가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아깝지도 않다

권태진 목사의 「아비 목회」



아비 목회 | 권태진 두란노 | 216쪽

이들은 그 비결로 '아비 목회'를 첫 손에 꼽는다고 한다. 세상살이에 상처받고 쓰러진 성도들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 성도들을 향한 그의 유별난 사랑과 보살핌은 계속됐고, 언제부턴가 지역과 성도, 그리고 동료 목사들 사이에 이는 '아비 목회'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권 목사는 "아비 목회라 해서 뭐 특별히 신기한 것도 없다"며 "그냥 어려운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 한 것이 전부"라고 난감해 하는데, 이렇듯 진솔한 모습이 요즘 대형교회 목회자 같지 않은 '아비 목회'의 요체이다.

권 목사는 성도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자녀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성도들은 권 목사의 '아비 목회'를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는 담임목사의 마음"이라고 이해한다. 책에는 이러한 권 목사의 '아비 목회'에 대한 성도들의 증언들이 담겨 있다.

30년 전 '천막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권 목사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 '복지'라는 개념도 없이 공알 하나를 나눠먹는 심정으로 함께하려 노력했던 모습들은 지금의 다양한 복지 사역으로 이어졌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다. 가진 것을 다 쥐도 아깝지 않고,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비 목회'는 아니다. "아비란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주는 존재가 아니기에, 보호함과 가르침의 의무를 갖

고 있다." 권 목사는 천막 교회를 개척한 순간부터 목사와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를 꿈꾸었고, 그러기 위해 목사에 버금가는 영성 깊은 성도를 키우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말씀의 편식'을 방지하기 위한 강해설교를 시작했고, 현장에서 섬김을 통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동역자로 세웠다.

"아비 목회는 기다림이다. 나는 가고 싶지만 성도가 힘들어하면 기다려

야 한다. 성도가 바위를 만났다면, 교회가 바위를 만난 것이다.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아픈 곳을 치료해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성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있다. 세속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깊이 역사하시는 생명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대용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권태진 목사의 <아비 목회>가 출간됐다.

권태진 목사가 시무하는 군포제일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성도들은 물론 교회를 잘 아는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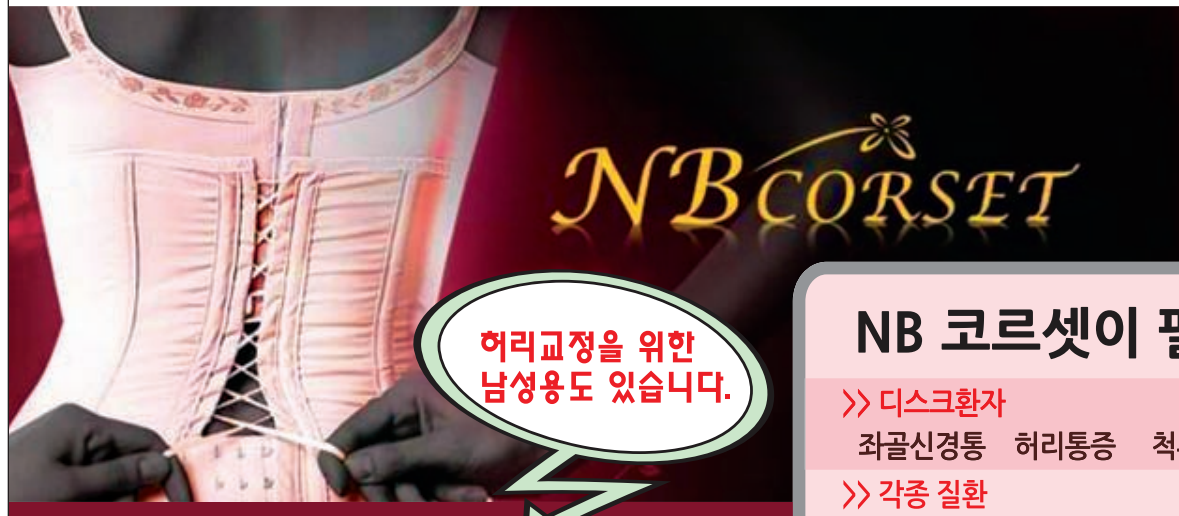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투중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멸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40%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니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임신 중 트살 방지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축, 하혈)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창립 6주년 맞은 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목사가 말하는 목회 철학

“원하는 것” 아닌 “필요한 것” 주는 교회 되어야

최근 창립 6주년을 맞은 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담임목사를 만났다. “목사 같지 않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그의 고백답게 그의 첫인상은 목사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대화가 진척되면서 그의 남다른 외모가 정형화된 목회자상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서야한다는 목회 철학의 결과였음을 알게 됐다.

토기장이교회, 교회 이름이 독특하다. 이 이름을 지은 계기와 이름에 담긴 의미는?

토기장이교회(potterscc.com)를 개척하기 전 교육부 간사로 섬길 때부터 토기장이(potter)란 이름을 사용했다. 초등학교를 가르칠 때 학생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쉬운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어린이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고민하다가 찾은 단어가 토기장이였다. ‘-장이(a professional doer of-)’라는 말에는 어떤 일에 미쳐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토기에 미친 분이 하나님이고 토기는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치신 분이시다’라고 어린이에게 설명해 줬다. 그러자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셨냐고 물었다. 이에 답하기는 쉬웠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미치신 분’(요3:16)이라고 설명해 줬다.

토기장이교회를 회복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어떤 의미의 회복을 말하는가?

회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 우리 불순종 때문에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부흥은 수직인,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성장은 수직적인 의미를 지닌다.

핵심가치로 예배, 소그룹, 문화를 제시했다. 각각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 교회 목회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이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는

말씀으로부터 ‘예배’, ‘소그룹’, ‘문화’라는 가치가 나왔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소그룹 활동은 교회, 즉 ‘내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성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보통 연속 주석(running commentary) 설교를 한다. 성도에게는 성경 66권의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다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한 절도 빠짐없이 설교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비기독교인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애너하임과 엘에이 두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두 곳에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지금은 목회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두 곳에 개척한 이유는 사도 바울적인 교회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곳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듯, 여러 곳에 토기장이교회를 세워 관리하는 체제로 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은 그들을 전도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개척 방식이 오늘날 교회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많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선택한다. 그러다보니 먼저 설교를 해 오던 사람이 그 교회를 빠져 나가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지금은 애너하임에서 오전 9시, 11시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엘에이에서 오후 2시 예배를 드린다.

한국, 미국, 멕시코, 아프리카, 아마존을 선교하고 있다. 선교 현황은 어떤가?

이미 각 지역에 파송된 신실한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후원하는 아웃리치 형식의 선교를 하고 있다.

설교 중, 가수 사이와 김장훈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관중들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대와 각오가 없는 걸 안타까워했다. 그런 기대와 각오가 담긴 예배를 회복하려면?

저희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있는 교회다. 예배 형식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설교와 찬양,

축도만 있다. 열린 예배도 아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반응하느냐에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데에 예민하다. 예배가 잘못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반응에만 예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예민해야 한다. 레위기를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제물에 각을 뜨고 안수한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와서 거의 아무 것도 안한다.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을 하면 성도들은 ‘잘 해봐라, 나는 듣겠다’는 태도로 앉아 있다.

반면에 콘서트를 가는 사람들은 ‘미쳐보자’는 각오로 간다. ‘성도들은 얼마나 기대와 각오를 갖고 교회에 가는지’ 생각해 봤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많이 속상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리라’는 각오와 기대를 담은 예배가 돼야 한다. 한 크리스천이 ‘어떻게 매주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크리스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슬펐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교회가 청년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회가 청년들이던 누구든 자꾸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너가 원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앓은뱅이가 ‘원한 것’은 ‘돈’이지만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며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그들은 얼마 지나 또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한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녀교육에서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제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기장이교회는 ‘노예근성’과 ‘거지근성’을 철저히 뿌리 뽑는다. 노예근성은 ‘시키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고 거지근성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베풀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청년부 중심 교회인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나?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고 장년부를



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담임목사

다문화적(multi-cultural) 형태로 이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청년부에게 대해서는 다문화 공동체를 추구한다.

목회 소명은 언제 받았나?

목사가 될 거라 한 번도 생각 못했다.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목회의 소명을 놓고 고민했다. 어릴 때 생각했던 행복과 성공의 정의가 있다. 행복의 정의는 ‘~답게’ 사는 것이었다. 가면 쓰지 말고 ‘무슨 적까지 말지’는 것이다. 성공의 정의는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30대 초반에 내가 ‘~답게 살고 있는가’, ‘더 밝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를 놓고 고민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정작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지 고민했다. 만약 법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범조인이 됐을 것이다. 교회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되면 불평만 할 테니 인사이더로서 교회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목회자 길을 걷게 됐다.

목회자가 되기 전 신앙은 어떻게 했나?

모태신앙이고 찬양 사역을 일찍 시작했다. 85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타로 이민 왔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 20살 때 찬양사역을 시작했다. 밴드를 했는데 당시에는 크리스천 밴드가 없어 쓰임을 많이 받았다. 그 전까지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기 보다는 하나님 ‘할아버지’로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찬양 사역을 하면서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

오늘날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이 지닌 특수성이 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의 미국교회는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미국 내 한인교회는 문화적인 부분과 관계에 관한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 한인교회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에 나오고 미혼자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간다. 스님도 일단 미국에 오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 그들이 회복돼야 한다.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 ‘부흥’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병행해야 한다.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전도하려 한다. 개척한 후 한 번도 ‘전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예배에만 집중했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 전도가 됐다. 6주년이 되면서 ‘전도합시다’라는 말을 처음 했다. 그러나 교회 초청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전도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토기장이교회의 비전과 기도제목은?

토기장이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리고 싶다. 그게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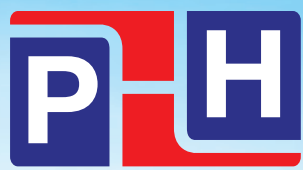
주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92801
웹사이트: PotterSCC.com
전화: 714-234-5338

한 주디 기자

Advertisement for Gold Finger Tailor. Features a man in a suit, the text 'Gold Finger', and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The Master of Tailoring). Includes contact info: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Advertisement for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Lists achievements: 90th National Sewing Competition, 94th National Sewing Competition, 95th National Sewing Competition, and 1979-2000 Daewoo Sewing Competition. Includes text: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 July
Special
Program**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tock# FU017232



**2014
HYUNDAI
SONATA GLS**

\$88 ^{+TAX}
36
Mon.

MSRP: \$22,415.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ULTIMATE
PACKAGE**

PURCHASE FOR AS LOW AS
\$52,170
^{+FEES}

Stock# DU070308
MSRP: \$67,170



SAVE UP TO
\$15,000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김
626.513.458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